

‘모두’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위원장

“자선”이 아니라 “권리”

초등학교 시절, 종례가 끝나면 선생님은 항상 몇몇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여 교무실로 불렀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이었다. 언제나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던 그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무상급식이 도입되었다. 모멸스럽게 이름을 불릴 걱정 없는 행복한 점심시간이 이어졌다.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무상급식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잔여적 관점에 머물렀다면, 무상급식 이후에는 모두의 권리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결여되거나 불쌍해서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관점이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보편주의의 원칙을 잘 담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의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보편성^{universality}이다. 특정 인구,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지급

된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이었던 복지정책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단순히 ‘권리 담론’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그 정당성을 더욱 확대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 ‘커먼즈’

기본소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은 무엇인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라고 정의하며,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라고 밝힌다. 공유부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햇빛, 바람, 토지, 생태환경 등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적 공유부가 있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축적된 지식, 수많은 이들의 활동으로 구성된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부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듯 ‘모두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경제체제에서는 이 ‘모두의 것’, 즉 커먼즈가 위협받고 있다. 가이 스탠딩은 저서 『공유지의 약탈』에서 공유지가 어떻게 국가와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소수에게 독점되는지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한다. 가이 스탠딩은 공유부가 특정 개인의 사적 자산이 아닌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모두의 것으로부터 나온 공유부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도 독점되어선 안 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 기본소득 형태의 공유부 배당은 공유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부 철학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공유부를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에 반대하며, 공유부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유부 기본소득의 논리. 그렇다면 이 논리에서 공유부를 함께 누려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명제에서 “모두”의 범주에는 어떤 이들이 포함되는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화폐를 지급받는 인간 시민이다.

하지만 공유부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귀속될 수 없듯이, “인간”만의 것으로도 귀속될

수 없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지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 활동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지구라는 삶의 터전에서 함께 공유지를 보존하고, 또 공유지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의 주민은 지구에 대한 공통의 공유자¹⁾commoner이다.

공유부를 모두에게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 속 ‘모두’의 범위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역시 공평하게 공유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인간 생명체를 배제한, 비인간 생명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유부 배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모두를 절멸로 몰아넣는 지금의 시스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지구의 생태환경을 모조리 독점해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약탈하며 무한 성장을 추구해 온 경제 시스템은 유례없는 기후재앙과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지구 온난화 가속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연 공유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자연공유지를 공유하고 있던 수많은 종을 멸종에 이르게 했다.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에게서 땅을 빼앗아 대규모 축산 농장을 만든 결과, 현재 인류와 인류가 소유한 가축이 전체 생물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착취 시스템 속에서 비인간 생명체들은 본연의 습성과 본능을 철저히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절멸로 몰아넣고 있다. 기후위기, 인수공통감염병의 일상화 등, “자연을 거의 무릎 꿇리는 약탈자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를 내쫓기 위해 포효하며 돌아온 자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²⁾

“모두의 것”을 “모든 숨탄 것들”에게

우리의 역사는 ‘자선’을 넘어 ‘권리’를 주창하며, 권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끊임없이 넓혀왔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보편성을 확장해 온 것이다.

1) 가이 스탠딩은 공유자는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생계나 생활방식을 공유지에 의존하며, 공유지의 관리, 보존,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제레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회복력 시대』, 민음사, 2022, 9.

기후재앙의 시대, 절멸의 시대, 이제는 인간 사회구성원을 넘어 지구 생명체 구성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 역시 지구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 역시 지구 공유지와 '얽힌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새로운 보편주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모두의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우리가 빼앗은 몫이 무엇인지 역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이어가기 위해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를 만들었다. 인간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양한 존재들의 목숨, 삶터, 생태환경을 파괴했던 지난 역사를 중단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기본소득 정치'를 통해 모색하고자 말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기본소득 정치는 비단 인간들에게 공유부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기후재앙을 불러일으키며 공유지를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일. 다른 종과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약탈과 파괴를 멈추는 일. 우리가 빼앗은 땅에 다양한 생명체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일. 아마존 열대우림을 되살리는 일. 공유지를 회복하고 공유지를 모든 지구생명체들에게 되돌리는 일. 성장주의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약탈을 중단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일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일이다.

기본소득의 정신, 보편주의의 정신이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을 고민했듯이 기본소득 정신이 돼지, 물새, 비자림, 산호초, 강아지풀의 존엄한 삶 역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구 생명체들이 각기 다른 경이로운 특성을 잃지 않고 각자 모습대로 인간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모두'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